

《강령: 영혼의 기술》영화 프로그램
Séance: Technology of the Spirit
 Film Program
 2025. 08. 26 ~ 11. 23

강소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Venue Cinematheque Seoul Art Cinema
 주관 및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Host & Organizer Seoul Museum of Art
 SeMA 파트너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SeMA Partners Korean Association of Cinematheques (KACT)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Every Saturday 1PM

본 영화 프로그램은 4개의 장으로 구성됩니다.
A film program in four chapters.

오래전부터 영화는 강령술과 많은 부분을 공유해왔습니다. 영화라는 형태가 생겨나면서 감독들은 산 자와 망자, 의식과 무의식, 이성과 영성을 매개하기 위해 이미지와 현실 간의 경계를 허물고자 했습니다.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영화 프로그램은 영화를 일상 속 신성의 발원으로 보는 피에르 파올로 파올리니의 비전과 영화를 공동 의례로 살피보는 마야 데렌의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기획되었습니다. **망자와의 대화, 조상들의 숨결, 프시케와 스크린, 일상 속 신비주리**라는 네 개의 주제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마다 총 5편을 한편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 티켓 예매는 상영 일정 2주 전부터 서울아트시네마 웹사이트에서 열립니다.
* Ticket booking opens on the Seoul Art Cinema website two weeks before each screening.

망자와의 대화 Speaking with the Dead	
영성주의적 강령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문턱을 넘어 소통하고자 하는 것처럼, 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장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산 자와 망자를 연결하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맥락에서의 상실, 애도, 안식을 성찰합니다.	Just as spiritist séances seek to communicate across the threshold separating the physical from the spirit world, so the films in this chapter connect the living with the dead. They reflect on loss, mourning, and repose in diverse cultural and religious contexts.
조상들의 숨결 Ancestors Breathing	

본 프로그램의 두 번째 주제는 조상의 존재를 사유하는 영화들입니다. 여기서 망자가 끊임없이 끼치는 영향은 그저 메타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산 자들의 풍경, 전통, 의례 안에서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조상과의 연결감이 어떻게 현재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하고, 시간에 관한 식민주의적 모형을 뒤엎으며, 과거를 소외시켜 온 근대성에 도전합니다.

프시케와 스크린
 Psyche and the Screen

본 장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아방가르드 영화 제작 기법을 활용하여 관객을 그리움, 부재, 강박의 경험에 몰입하게 합니다. 마음은 타임 루프, 정체성 분열, 환각으로 사라지는 현실을 통해 미로가 됩니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작품들은 조상과의 연결감이 어떻게 현재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하고, 시간에 관한 식민주의적 모형을 뒤엎으며, 과거를 소외시켜 온 근대성에 도전합니다.

일상 속 신비주의 Everyday Mysticism	
피에르 파올로 파올리니에게 영화의 신성한 잠재력은 현실의 변형이 아니라, 일상에 숨겨진 신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운명을 현실과 의식 사이에서 유예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작품들은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 마주하는 물음, 풍경들, 만남들이 그 너머의 압력에 의해 왜곡되는 것을 추적합니다. 여기서 기적은 거대한 사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내재하는 원로로서 자리합니다.	For Pier Paolo Pasolini, the sacred potential of cinema lay not in transforming reality but in revealing the mysteries hidden in the everyday. The films in this chapter consider faith as it is suspended between devotion and doubt. They trace bodies, landscapes, and encounters in which the visible world is distorted by the pressure of that which lies beyond. Here, miracles do not arrive as grand events but are embedded in the raw material of existence.

망자와의 대화 Speaking with the Dead		
08. 30	13.00	(1) 라울 루이즈, <다가올 영화>, 1997. 8분 Raúl Ruiz, <i>The Film to Come</i> , 1997. 8 min (2) 마르셀 카뮈, <흑인 오르페>, 1959. 107분 Marcel Camus, <i>Black Orpheus</i> , 1959. 107 min * 상영 시작 전 예술감독팀의 토크가 진행됩니다. * The screening will be introduced by the Biennale's Artistic Directors.
	16.10	(3) 이장호,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1987. 117분 Lee Jang-ho, <i>The Man with Three Coffins</i> , 1987. 117 min
09. 06	13.00	(4) 마티 디오프, <애틀랜틱스>, 2019. 106분 Mati Diop, <i>Atlantics</i> , 2019. 106 min

09. 13	13.00	(5) 트린 T. 민하, <밤의 여로>, 2004. 98분 Trinh T. Minh-ha, <i>Night Passage</i> , 2004. 98 min
조상들의 숨결 Ancestors Breathing		
09. 20	13.00	(6) 아파차퐁 위라세타쿤, <찬란함의 무덤>, 2015. 122분 Apichatpong Weerasethakul, <i>Cemetery of Splendor</i> , 2015. 122 min
09. 27	13.00	(7) 카밀로 레스트레포, <실라오스>, 2016. 13분 Camillo Restrepo, <i>Cilaos</i> , 2016. 13 min (8) 술레이만 시세, <광채>, 1987. 105분 Souleymane Cissé, <i>Yeelen</i> , 1987. 105 min

10. 04	13.00	(9) 가와세 나옴이, <너를 보내는 숲>, 2007. 97분 Naomi Kawase, <i>The Mourning Forest</i> , 2007. 97 min
	15.30	(10) 카롤린 데오다, <페티시의 하늘 아래>, 2023. 17분 Caroline Déodat, <i>Under the Sky of Fetishes</i> , 2023. 17 min (11) 타카미네 고, <변이로>, 2017. 81분 Go Takamine, <i>Hengyoro (Queer Fish Lane)</i> , 2017. 81 min

프시케와 스크린 Psyche and the Screen		
10. 11	13.00	(12) 켄 맥밀런, <고스트 댄스>, 1983. 100분 Ken McMullen, <i>Ghost Dance</i> , 1983. 100 min

10. 25	13.00	(15) 니나 멘케스, <팬텀 러브>, 2006. 87분 Nina Menkes, <i>Phantom Love</i> , 2006. 87 min
11. 01	13.00	(16) 페드로 코스타, <호스 머니>, 2019. 124분 Pedro Costa, <i>Horse Money</i> , 2019. 124 min

일상 속 신비주의 Everyday Mysticism		
11. 08	13.00	(17) 로베르토 로셀리니, <기적>, 1948. 40분 Roberto Rossellini, <i>The Miracle</i> , 1948. 40 min (18) 장뤽 고다르, <마리아에게 경배를>, 1985. 72분 Jean-Luc Godard, <i>Hail Mary</i> , 1985. 72 min
11. 15	13.00	(19) 피에르 파올로 파올리니, <달에서 본 지구>, 1967. 11분 Pier Paolo Pasolini, <i>The Earth as Seen from the Moon</i> , 1967. 11 min (20)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체리향기>, 1997. 92분 Abbas Kiarostami, <i>Taste of Cherry</i> , 1997. 92 min
11. 22	13.00	(21) 알리체 로르와커, <키메라>, 2023. 130분 Alice Rohrwacher, <i>La Chimera</i> , 2023. 130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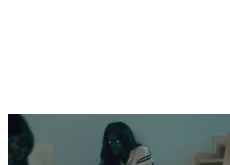
(1)	15
라울 루이즈 Raúl Ruiz <다가올 영화> <i>The Film to Come</i>	
1997 France/Switzerland 8 min	



(2)	15
마르셀 카뮈 Marcel Camus <흑인 오르페> <i>Black Orpheus</i>	
1959 Brazil 107 min	



(3)	19
이장호 Lee Jang-ho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i>The Man with Three Coffins</i>	
1987 South Korea 117 min	



(4)	15
마티 디오프 Mati Diop <애틀랜틱스> <i>Atlantics</i>	
2019 Senegal/France 106 min	

이 단편 영화에 등장하는 비밀 결사회 필로키네테스는 신비롭고, 신성하며, 작품과 동명의 셀룰로이드 스트립을 보는 것에 전념합니다. 트랜스와 유사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들은 일상의 삶이 단지 꿈에 불과하며, 영화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수 있는 원초적 실체라고 믿게 됩니다.

In this short fable, a secret society known as the Philokinetes devotes itself to the continuous viewing of a mysterious, sacred strip of celluloid—the eponymous film to come. Existing in a trance-like state, they come to believe that ordinary life is merely a dream, and that cinema is the primordial substance from which a new world might arise.

이 영화는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케 신화를 20세기 중반 리우데자네이루의 거리에서 열린 카니발 축제로 옮겨와 재해석합니다. 거리의 전차 운전사인 오르페우스와 위험을 피해 도망친 여인 에우리디케는 짝지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음악, 춤, 신화가 뒤섞이는 세계 속에 펼쳐지는 그들의 이야기가 삶과 죽음 사이의 흐릿한 경계를 드러냅니다.

A retelling of the Orpheus and Eurydice myth, transposed onto the streets of mid-century Rio de Janeiro during Carnival. Orpheus, a streetcar conductor, and Eurydice, a woman fleeing danger, fall into a love that is both brief and fated. Their story unfolds in a world where music, dance, and myth blend, evoking the porous boundary between life and dea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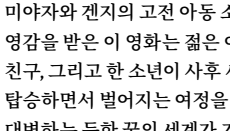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된 순석은 아내의 유골을 고향에 뿌리고자 길을 나섭니다. 여행길에서 아내와 묘하게 닮은 여성 세 명을 만나게 되고, 그의 시간과 자아에 관한 감각이 뒤흔들리게 됩니다. 이제화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과거와 현재가 합쳐진 꿈 같은 현실을 통과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픽션과 무속 다큐멘터리 푸티지를 섞어 만든 이 영화는 트랜스와 유사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Three years after his wife's death, Sun-seok sets out to scatter her ashes in her hometown. Along the way, he encounters three women who eerily resemble her, unsettling his sense of time and self. Adapted from Lee Je-ha's novel, *The Man with Three Coffins* centers on a man's journey through a dreamlike reality where past and present merge. By blending fiction with documentary footage of shamanic rituals, the film creates a trance-like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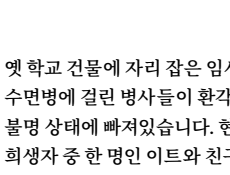
다카르의 한 교외에 새로운 고층 빌딩이 대서양 연안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착취를 등에 업고 세워진 이 건물은 부를 상징합니다.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 중에는 다른 남자와 약혼한 아들을 사랑하는 젊은 술레이만도 있습니다. 수개월간 임금을 받지 못한 술레이만과 동료들은 절박함에 더 나은 미래를 찾아 바다로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이 사라지고 며칠 후, 도시 전체에 기이한 열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다가 상성에 빠져 있는 동안, 실종된 남자들의 유령이 돌아와 산 자들의 몸속 주주하며 생전에 거부당했던 것들을 요구합니다.

In a suburb of Dakar, a new skyscraper towers above the Atlantic coast, a symbol of wealth built on the backs of exploited laborers. Among them is Souleiman, a young construction worker in love with Ada, who has been promised to another man. Unpaid for months, Souleiman and his fellow workers make the desperate decision to leave by sea in search of a better future. In the days following their disappearance, a strange fever begins to spread through the city. As Ada struggles with her grief, ghosts of the lost men return, inhabiting the bodies of the living and demanding what was denied to them in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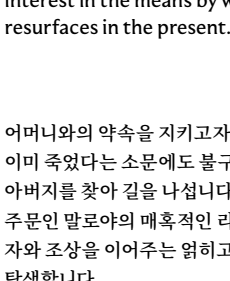
After years spent in a retirement home, Shigeki, an elderly man mourning the death of his wife, forms a quiet bond with his caregiver, Machiko, who is coping with her own buried grief. Together, they embark on a journey into a dense forest. Rooted in the Japanese concept of *mogari*, a period of mourning and transition, the film expresses native customs and beliefs around death and rememb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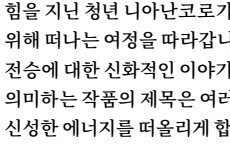
(5)	15
트린 T. 민하 Trinh T. Minh-ha <다가올 영화> <i>Night Passage</i>	
2004 USA/Vietnam 98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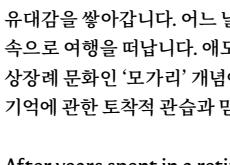
(6)	15
아파차퐁 위라세타쿤 Apichatpong Weerasethakul <찬란함의 무덤> <i>Cemetery of Splendor</i>	
2015 Thailand 122 min	



(7)	15
카밀로 레스트레포 Camillo Restrepo <실라오스> <i>Cilaos</i>	
2016 Colombia 13 min	



(8)	15
술레이만 시세 Souleymane Cissé <광채> <i>Yeelen</i>	
1987 Mali 105 min	



(9)	All
가와세 나옴이 Naomi Kawase <너를 보내는 숲> <i>The Mourning Forest</i>	
2007 Japan 97 min	

미야자와 겐지의 고전 아동 소설 『은하철도의 밤』에서 영감을 받은 이 영화는 젊은 여성과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한 소년이 사후 세계로 향하는 마법 열차에 탑승하면서 떠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변하는 듯한 꿈의 세계가 기차 장면을 통해 현실의 삶으로 스며드는 듯한 놀라운 통찰과 마주하게 되고, 이에 어울리는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Inspired by Miyazawa Kenji's classic children's novel *Milky Way Railroad*, this film follows a young woman, her best friend, and a young boy as they travel on a magical train into the afterlife. Through the window of the train we observe a series of marvellous landscapes, accompanied by a comparably extraordinary score, that seem to bring the world of dreams—and perhaps of death—into waking life.

옛 학교 건물에 자리 잡은 임시 진료소에서 정체불명의 수면병에 걸린 병사들이 환각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인 젠지라는 희생자 중 한 명인 이트와 친구가 되고, 그의 집에 묻힌 시체를 발치내기 위해 영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화는 교묘한 사회 비평을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를 다시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에 대한 감독의 관심을 보여줍니다.

In a temporary clinic set up in a former school, a group of soldiers afflicted with a mysterious sleeping sickness lie in a state of suspended consciousness in which it becomes impossible to separate hallucination from reality. Jenjira, a local volunteer, befriends one of the victims, Itr, and enlists a medium to help uncover the memories buried in his slumber. A subtle social commentary, the film showcases Weerasethakul's interest in the means by which historical trauma resurfaces in the present.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자 한 젊은 여성이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를 찾아 길을 나섭니다. 레위니옹 섬의 제의적 주문인 말로아의 매혹적인 리듬에 흠뻑 젖은 이 작품은 산 자와 조상을 이어주는 잊히고실진 연결과 청산의 의미를 탐색합니다.

To keep a promise made to her mother, a young woman goes in search of the father she has never met, despite rumors that he has died. Carried by the spellbinding rhythm of the maloya, a ritual chant from Réunion Island, *Cilaos* explores the complex binds that connect the living with their forebears, and what it means to settle a score.

밤바라족의 우주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광채>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천년 나이만코로가 폭력적인 아버지와 맞서기 위해 떠나는 여정을 따라갑니다. 이 영화는 입문과 지식의 장승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밝음 혹은 빛을 의미하는 작품의 제목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오는 신성한 에너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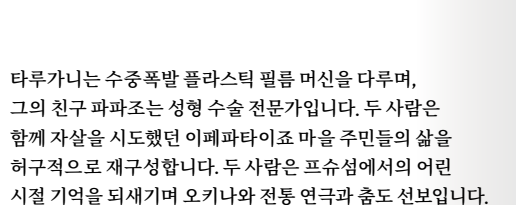
Rooted in Bambara cosmology, *Yeelen* follows Nianankoro, a young man with mystical powers, as he journeys to confront his tyrannical father. The film unfolds as a mythic tale of initi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knowledge. Its title—meaning “brightness” or “light”—evokes both illumination and the sacred energie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양로원에서 수년간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내는 노인 시게키는, 자신만의 깊은 슬픔을 극복 중인 간병인 마치코와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울창한 숲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에도 기간을 뜻하는 일본 고대의 상징 레 문화인 ‘모가리’ 개념에 기반을 둔 이 영화는 죽음과 기억에 관한 토착적 관습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After years spent in a retirement home, Shigeki, an elderly man mourning the death of his wife, forms a quiet bond with his caregiver, Machiko, who is coping with her own buried grief. Together, they embark on a journey into a dense forest. Rooted in the Japanese concept of *mogari*, a period of mourning and transition, the film expresses native customs and beliefs around death and remembrance.

이 단편 영화는 모리세에 이주해 온 도망 노예들의 공동체에서 탄생한 전통 무국인 세가의 역사를 다룹니다. 노예제 폐지 동안에는 억압되었다가, 제도의 폐지 이후 급기시된 세가는 관망이 대중화되면서 모리코스 ‘공식적인’ 유산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식민주의적 시선과 비서구 문화를 향한 강요된 해석을 거부하는 영화는 단순히게 춤추는 몸들 따라가며 전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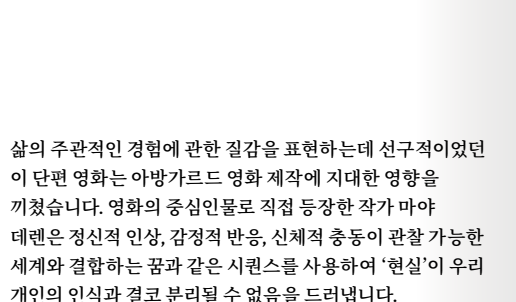
This short film tells the history of *séga*, a musical and dance tradition particular to enslaved and fugitive communities in Mauritius. Repressed under slavery and taboo after abolition, the form only gained “official” heritage status with the advent of mass tourism. Seeking to resist the colonial gaze and the interpretations it forces on nonwestern cultures, the film simply follows the dancing body.



(11)	15
타카미네 고 Go Takamine <변이로> <i>Hengyoro (Queer Fish Lane)</i>	
2017 Japan 81 min	

Tarugani operates a plastic underwater explosion film machine, while his friend Papajo specializes in plastic surgery. Together, they fictionally reinvent the lives of villagers at Ipepataiyyo who have attempted suicide. The two also perform traditional Okinawan plays and dances, reflecting on memories of their childhood in Island Pshoo. Surrounding them is an eclectic group: Missiler, a rock 'n' roller; Seitoku, a tradesman with his soulless wives, the Bibiji; and Kame, a plaster artisan who sings Okinawan folk songs.

Centering on two characters in Paris and London, *Ghost Dance* explor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ghosts and the nature of cinema. The French philosopher Jacques Derrida famously appears in the film, stating that “cinema, when it’s not boring, is the art of letting ghosts come back.”



A pioneering attempt to express the texture of lived, subjective experience, this celebrated short film would prove enormously influential on avant-garde filmmaking. Deren, who also plays the central role, uses dreamlike sequences in which mental impressions, emotional responses, and physical impulses merge with the observable world to reveal how “reality” can never be separated from our individual perception of it.

양로원에서 수년간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내는 노인 시게키는, 자신만의 깊은 슬픔을 극복 중인 간병인 마치코와 유대감을 쌓아갑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울창한 숲 속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에도 기간을 뜻하는 일본 고대의 상징 레 문화인 ‘모가리’ 개념에 기반을 둔 이 영화는 죽음과 기억에 관한 토착적 관습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14)	19
루이스 부뉴엘 Luis Buñuel <욕망의 모호한 대상> <i>That Obscure Object of Desire</i>	
1977 France 104 min	

Based on Pierre Louÿs's novel *The Woman and the Puppet*, Buñuel's final film tells the story of Mathieu Faber, a middle-aged man consumed by his desire for a young woman named Conchita. Played by two different actresses, Conchita becomes an unstable object of obsession, reflecting Mathieu's shifting identities. The film moves between seduction and rejection, passion and power, in a nonlinear narrative marked by abrupt transitions and unresolved tensions.



(15)	15
니나 멘케스 Nina Menkes <팬텀 러브> <i>Phantom Love</i>	
2006 USA 87 min	



(16)	15
페드로 코스타 Pedro Costa <호스 머니> <i>Horse Money</i>	
1983 UK 100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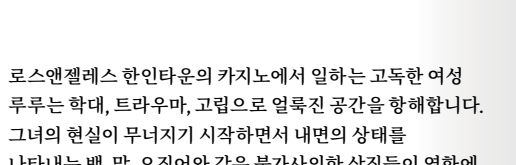


(17)	15
로베르토 로셀리니 Roberto Rossellini <기적> <i>The Miracle</i>	
1943 USA 14 min	

A peasant believes she has encountered Saint Joseph and in a state of religious ecstasy shows him with compliments, only to later find herself pregnant with his child. Ostracized by her community and ridiculed as a madwoman, she opts to bear the child anyway, believing she has been blessed by a holy spirit. Rossellini portrays her experience with restraint and ambiguity, offering a powerful reflection on belief, isolation, and grace.

부뉴엘의 마지막 작품인 이 영화는 피에르 루이의 소설 『여인과 인형』을 원작으로 하며, 젊은 여성 콘치타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중년 남성 마티외 파베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두 명의 여배우가 분하는 콘치타는 마티외가 불안정하게 집착하는 대상으로, 마티외의 움직임이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영화는 감각스러운 전환과 해결되지 않은 긴장감으로 절묘한 비선형적인 서사 속에서 유혹과 거부, 열정과 권력 사이에서 전개됩니다.

Based on Pierre Louÿs's novel *The Woman and the Puppet*, Buñuel's final film tells the story of Mathieu Faber, a middle-aged man consumed by his desire for a young woman named Conchita. Played by two different actresses, Conchita becomes an unstable object of obsession, reflecting Mathieu's shifting identities. The film moves between seduction and rejection, passion and power, in a nonlinear narrative marked by abrupt transitions and unresolved tensions.



로스펠렌셀스 한인타운의 카지노에서 일하는 고독한 여성 루루는 학대, 트라우마, 고품으로 얼룩진 공간을 향해합니다. 그녀의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상태를 나타내는 뱀, 말, 오징어와 같은 불가사의한 상징들이 영화에 등장합니다. 멘케스는 이 작품을 통해 심리적 단절과 시각적 구성이 깊이 얽힌 세계를 구축하며, 감정적 소외와 탈출의 필요성을 그려냅니다.

Lulu, a solitary woman working in a casino in Los Angeles' Koreatown, navigates a space shaped by abuse, trauma, and detachment. As her reality begins to fray, the film presents a succession of enigmatic symbols—including snakes, horses, and squid—that evoke inner states. Menkes crafts a world where psychic rupture and visual composition are deeply entwined, offering a portrait of emotional alienation and the need for escape.

The film follows an old man called Ventura as he traverses a seemingly endless night populated by the ghosts of his past. The time is both now—marked by hospital stays and bureaucracy—and also the time of Ventura's youth, when Portugal was in revolution and he got into a knife fight with his friend... From the rest-less spirits that haunt a decaying city, Costa conjures a spellbinding cinematic experience.

성 요셉을 만났다고 믿고 종교적 황홀경에 빠져 그를 찬양하던 한 시골 여인이, 곧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광인으로 조롱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축복을 받았다고 믿으며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로셀리니는 자신의 경험을 절제되고 모호하게 그려내며 믿음, 고통, 운명에 관한 강력한 성찰을 제시합니다.

A peasant believes she has encountered Saint Joseph and in a state of religious ecstasy shows him with compliments, only to later find herself pregnant with his child. Ostracized by her community and ridiculed as a madwoman, she opts to bear the child anyway, believing she has been blessed by a holy spirit. Rossellini portrays her experience with restraint and ambiguity, offering a powerful reflection on belief, isolation, and grace.



(18)	19
장뤽 고다르 Jean-Luc Godard <마리아에게 정배를> <i>Hail Mary</i>	
1985 France 72 min	

A contemporary retelling of the story of the Virgin Mary, the film juxtaposes religious narrative with modern life. In this serene and lyrical work presents Mary as an ordinary teenager. Following a warning from an angel, a confused and innocent Mary unexpectedly falls pregnant and is forced to wed her taxi-driving boyfriend Joseph. He, in turn, must love his virgin bride from a distance, revering her without touching her.



(19)	15
피에르 파올로 파올리니 Pier Paolo Pasolini <달에서 본 지구> <i>The Earth as Seen from the Moon</i>	
1967 Italy 11 min	



(20)	15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Abbas Kiarostami <체리향기> <i>Taste of Cherry</i>	
1997 Iran 92 m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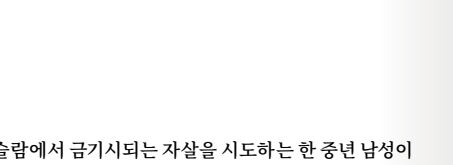
(21)	12
알리체 로르와커 Alice Rohrwacher <키메라> <i>La Chimera</i>	
2023 Italy 130 min	

성모 마리아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이 영화는 종교적 서사와 현대적 삶을 병치합니다. 고요하고 서정적인 이 작품은 마리아를 평범한 청소년으로 묘사합니다. 천사의 경고를 받은 뒤 혼란에 빠진 순결한 마리아는 예기치 않게 임신하게 되고, 택시 운전사인 남자 친구 요셉과 강제로 결혼합니다. 요셉은 한편 자신의 동경녀 신부를 멀리서 만지치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A contemporary retelling of the story of the Virgin Mary, the film juxtaposes religious narrative with modern life. In this serene and lyrical work presents Mary as an ordinary teenager. Following a warning from an angel, a confused and innocent Mary unexpectedly falls pregnant and is forced to wed her taxi-driving boyfriend Joseph. He, in turn, must love his virgin bride from a distance, revering her without touching her.

이 초현실적이고 코믹한 우화는 세속과 기적 사이의 흐릿한 경계들을 따라 사랑, 상실, 삶의 무조리를 탐구합니다. 버섯 증독으로 아내가 사망한 후, 남자와 그의 아들은 아내를 대신할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이설문 수색을 하던 그들은 녹색 머리를 한 신비로운 여성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A surreal and comic fable exploring love, loss, and the absurdity of life, in which the boundaries between the profane and the miraculous blur. After the death of his wife by mushroom poisoning, a man and his son set out to find her replacement. They are helped in their incompetent search by a mysterious green-haired woman.



이슬람에서 금기시되는 자살을 시도하는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체리나무 아래에 묻어줄 사람을 찾기 위해 테헤란 외곽을 차로 달립니다. 그는 차에 여러 사람들을 태워 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각각은 그의 계획에 관해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심한 관찰이 한 번에 작동되는 현실적인 이야기이자, 운유와 상징으로 가득 찬 우화 같은 영화 <체리향기>는 관객으로 하여금 억압된 것과 마주하게 합니다.